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 진료비 3.8배 증가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08년 노인성질환*자의 수가 95만 2천명을 기록하였으며, 총진료비는 2조 1,900억원인 것으로 발표함.

○ 분석결과 2002년 대비 2008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90.8%, 총진료비는 278.2%,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81.2%(1조 7천억원) 증가하였음.

○ 노인성질환자의 진료비 추이는 2004년을 기점으로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, 65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에서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

* 노인성질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, 파킨슨병, 뇌혈관질환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이 포함됨.

□ 노인성질환자의 10만명당 치료유병률은 2002년에 1,039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,884명으로 약 2배가 늘어남.

○ 일반적인 유병률과는 달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치료유병률에 있어서도 65세 이상 노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.

○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노인성질환자는 10만명당 6,906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1,935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, 65세 미만 노인층에서는 2002년 533명에서 2008년 768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.

□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수요측면에서 후기고령자의 급증에 따른 결과이며, 공급측면에서는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증가가 노인성질환 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.

○ 요양병원 병상의 경우, 2003년 8,355병상에서 2007년 66,727병상으로 698.7%나 급격하게 증가함.

○ 특히 노인성질환 중 치매와 파킨슨병의 2005년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진료비(1인당 총진료비)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잠재수요가 현실화 된 것임.

(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3.78배로 증가, 국민건강보험공단, 2/1)